

제31차 CIRET 회의 참가결과 보고

1. 참가 개요

- 회의명 : 31th CIRET Conference
 - ※ CIRET(Centre for International Research on Economic Tendency Surveys)
: 경제동향조사에 관한 국제연구센터,
- 주관기관 :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WIFO(Austr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)
- 출 장 자 : 경제통계기획과 5급 박원란
 - ※ 참가자: OECD, Eurostat 등 국제기구 및 미국, 영국, 일본, 중국 등
각 국 대표 185명 참가
- 회의(세미나)일정 : 2012. 9. 5(수) ~ 8(토)
- 장소 : 오스트리아 비엔나 WKO(Austria Economic Chamber)

2. 업무수행내용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기종합지수 개선 동향 파악
- GDP흐름의 조기파악을 위한 경기 선행지표 작성 및 분석 동향 파악
- 경기측정을 위한 최근의 기법 및 각국의 경기측정을 위한 경기 전환점의
시그널 모니터링 등 자료수집

3. 회의내용 요약

□ 회의구성

- 1일 4개 시간대로 편성(오전 2개 오후 2개)
- 1개 시간대에 4개 세션이 있고, 각 세션별로 2~3개의 논문 발표 및 토론

□ 주제

-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 및 전조현상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최근의 경기평가 및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발생원인 분석
 -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경기선행지표들의 흐름 변화 파악으로 최근의 경기 해석
 - 변화된 경제구조 반영을 위한 각국의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개발
- 각국의 경제지표에 검증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의 경제지표들의 경기대응력 변동 파악
- 경기변동의 조기 포착을 위한 노력
 - ※ 참가자는 공식적인 통계전문가, 중앙은행, 분석·예측 연구기관, 대학 등 학술기관으로 구성

□ 발표된 논문 분야

- 경기선행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단기 경기조사와 지표
 - 기업경기조사
 - 소비자동향조사
 - 경기종합지수 및 선행 지표
 - 경기선행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
 -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 등
- 특별 토픽
 - GDP를 넘어선 웰빙, 질적 삶 측정을 위한 조사
 - 노동시장 분석, 등

4. 회의 세부내용

□ 세부내용

< 미국의 경기종합지수 개편 >
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로 경기종합지수의 구성지표들의 경기대응력에 변화가 생겨 경기대응력이 적은 변수는 제외하고 해당 경제부문을 잘 설명하고 경기대응력이 훌륭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기종합지수 개편 실시 (미국)
- 경기대응력 평가방법으로 전환점분석, Probit Model, 마코브 스위치 모델을 사용
- 교체내용
 - .M2 ⇒ 선행신용지수(대출사이클을 나타내주는 지수)
 - .ISM 공급자배달지수 ⇒ ISM 신규주문지수
 - .미시간 소비자기대지수 ⇒ 미시간 및 TCB의 경기기대지수 평균
 - .자본재신규수주(국방제외) ⇒ 자본재신규수주(국방제외, 국방중 항공은 포함)
- 목표추세기간을 1959~1983, 1984~2011로 분리

< 일본의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검증 >

- 경기대응력이 향상을 위해 2011년 개편을 실시한 일본의 경기선행지표와 OECD에서 작성중인 일본의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선행성 평가로 개편 구성지표의 정도 평가
- 평가방법은 주파수영역 인과분석(Frequency Domain Causality test)와 OECD의 CACIS(Cyclical Analysis and Composite Indicator System) 프로그램에 탑재해 있는 Bry & Boschan 방법 이용
- .주파수 인과분석결과 대출/예금 비율(OECD), 장단기금리차(OECD, 일본선행지수)가 선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

- 일본의 제로금리,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정책의 영향으로 보임
- 주파수인과분석은 모든 자료에서 적어도 얼마간의 주파수에서 의미있는 인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

- .CACIS분석으로부터는 수출/수입비율, 주택건설 착공지수, 신설주택 착공면적, 니케이 상품가격지수 등은 선행성이 낮음
- .소비자신뢰지수와 제조업 투자환경지수는 상당히 선행성이 있음
 - OECD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로 이 2개의 지표 사용을 제안

< 인도네시아의 경기선행지수 개발 >

- 금융정책 수립을 통해 더 좋게 경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기준순환일의 파악이 주요하나 3가지 문제가 있어 정책수립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웠음
 - .관찰차이 : 조사된 자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걱정된 정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확대하여 경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밀하지 않음
 - .수행차이 :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므로 통화정책은 길 필요가 없으나, 재정정책에서 정책논쟁은 몇 년간 계속되므로 적시에 통화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움
 - .충격차이 : 정책변화로 인한 거시경제에서의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음
- 인도네시아 은행에서는 성장률방법으로 작성한 인도네시아 GDP 선행종합지수의 개선안을 마련했음
 - .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선행종합지수를 2006년 마지막으로 수정하였고 처음에는 경기를 잘 설명하였으나, 최근 확장국면을 확인하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

.또한, 통화정책을 시행하려면 3분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실제 선행종합지수는 5개월 선행함으로써 선행종합지수의 개선이 필요

- 목표추세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였음
- 작성방법 : OECD의 CLI 작성시스템 이용
 - 지표선정
 - 계절조정, 특이치제거 : TRAMO/Sheets 이용
 - 추세제거 : PAT와 Bry & Boschan 방법 이용
 - 표준화
 - 평가 : 구성지표의 주기적 적합성 및 일관성 (전환점분석 및 지표간 상관분석 등을 이용)
 - 동일가중치로 지표 통합
- CLI의 구성지표(7개) : 산업생산지수 출판인쇄, 투자신용, 광연료 운환유의 수출규모, 산업생산지수 의료용품 및 기구, 제조업의 수출규모, 미국경기선행지수, 인도네시아 대비 환율 등
- 결론 : 인도네시아 선행지수가 GDP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 - 향후 개선사항 :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
 - .활용가능한 지표가 여전히 적음
 - .GDP가 분기자료라 월별자료인 산업생산지수를 이용
 - .구성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임

< 글로벌 경제위기후 중국 거시경제의 구조변화 및 선행지수 개편 >

-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

선행구성지표의 변경 필요

- 중국의 경기예측기관 중 1위기관인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센터에서는 2005년 이후 선행지수를 작성해 옴
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에서 소비 및 투자에 이르기까지, 산업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성장 동력에 명백한 변화가 있음
 - 글로벌 경제위기이전 경기를 선도한 부문 : 수출, 비철금속
 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를 선도한 부문 : 내수 중 특히 소비, 부동산 (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며,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)

< 동유럽국가의 경기순환지표 조사 >

- GDP는 경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나, 생산시기가 늦어 경제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용할 소프트 지표가 필요
 - 경기체감지수(소프트 지표)로 GDP를 예측한 결과 성장률이나 생산지수 등을 이용한 예측보다 예측력이 더 좋음
 - ※ 소프트지표 : 경기예측을 위해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생산되는 조사자료
- Visegrad 국가(체코, 슬로바키아, 폴란드, 헝가리)에 대한 구조단절테스트 결과 소프트 지표가 하드지표로 예측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았음
 - ※ Visegrad 국가 : 헝가리의 Visegrad 도시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상을 맺은 4개 국가를 일컫음
- ESI(경기체감지표)로 GDP 예측시 대부분의 국가는 잘 예측하였으나, 폴란드는 잘 맞지 않았음 이는 선형모형으로만 적합을 시켰기 때문으로 보임
 - 경기예측을 위해 좀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

< 경기사이클의 역동성 >

- 경기 사이클의 파악은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, 사이클의 역동성으로 인한 주기의 변화가 이를 어렵게 함
 - EU, 미국, 일본의 1945~2010년 자료에 대한 프리에변환을 통해 연구
- 경기사이클의 일반적인 특징
 - 사이클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보통 8~19분기(2년~4.25년)의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나, 지수를 통해 검증해 보면 20~40분기(5년~10년)의 주기로 경기가 순환함
 - 1개의 사이클로 전체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즉, 여러 개의 사이클이 겹쳐서 하나의 경기순환을 형성하고 있음
 - 경기후퇴시는 계절 및 불규칙 등만 제거되고 추세가 제거되지 않는 단계적 사이클 국면 즉, 고전적인 사이클로 설명되는 사이클만 가짐
 - 주주기의 경기흐름에 보조주기의 흐름이 가미되면서 경기의 역동성이 생성됨
-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각 나라의 경기사이클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며,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조주기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
 - EU는 대체로 순환기간이 길고 일본은 짧음

	미 국	EU	일본
자료기간	1945~2010	1970~2010	1951~2010
순환횟수	11	3	13
평균확장기간	19분기(4.75년)	41분기(10.25년)	12분기 (4년)
평균수축기간	4분기 (1년)	6분기 (1.4년)	5분기(1.25년)
평균순환기간	23분기(5.75년)	46분기(11.5년)	18분기 (4.5년)
최단순환기간	6분기 (1.5년)	22분기(5.5년)	11분기(3.75년)
최장순환기간	43분기(10.75년)	64분기 (16년)	29분기(7.25년)

4. 기대 효과

- 경기종합지수 개편에 사용된 여러 최신의 기법 및 OECD의 CACIS 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경기측정기법에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Kostat-CIS 개선시 반영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좀더 정도높은 경기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경기동향조사 데이터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예측에 대한 자료 수집

<참 고> 세션별 주요 발표 및 논의 목록

□ 기초연설: GDP를 넘어선 측정에서 조사 자료의 활용(The use of Surveys in measurement Beyond GDP)

□ 세션1 경기전망조사(Business Tendency Surveys)

- 무응답 항목의 균형통계량 사용의 안정성
- 생산결정시 기대심리의 역할
- 기대착오, 불확실성과 경제활동
- 미시자료의 역동성
- 소규모 및 중기업이 가지는 특별한 경제적 환경
-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
- 환율과 물가
- 물가의 경직성과 가격변동 위험률 : 질적 조사자료 근거
- 상태공간접근법을 이용한 브라질의 매월 GDP 제공
- 흩어진 조사자료를 이용한 매크로 변수 예측
- 새 EU회원국 거시경제의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과 신뢰지수에의 반영
- 경기전망조사로부터 형성된 추적 기대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업경기전망조사
- 회상조사는 정확할 것인가?
- BSI 조사표의 개선을 위한 온라인 실험조사
- 재고투자의 움직임과 회복 : 심리조사로부터 자료
- 투자의 이상행태
- 지역경제 성장예측

□ 세션2 경기종합지수와 선행지수(Composite and Leading Indicators)

- 미국의 경기종합지수 개편사유 및 과정 설명
- OECD G7국가(미국, 캐나다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이태리, 일본)의 OECD 경기선행지수
- 일본의 OECD선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의 평가
- 아비다부에서의 경기지표와 경기종합지수 작성
- 동유럽국가들의 경기지표 검색 및 분석
- 인도네시아의 경기선행지수 작성
- 중국의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선행지표들의 움직임 변화분석
- 유럽경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?
- 매크로자료를 이용한 경제성장분석을 위한 재정 강도 지수

□ 세션3 Innovation Activities

- 경쟁과 조사의 정확성
- 경제성장과 전력소비
- R & D 투자의 특징과 주기성
- 대학에서 나온 법인의 특허와 기술
- 개혁된 회사와 개혁되지 않은 회사의 비교 분석

□ 세션4 Surveys Among Experts

- 러시아의 전문가 예측조사는 경기전환점 예측에 도움을 주나?
- 조사의 이면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? 예측 행동의 분석
- 경기예측지표가 언제 모이나? 국제적 근거에 기반
- 인플레이션의 추세수준 및 불확실성 측정

- 예측시 불확실성과 보정의 역할
- 나이지리아 통화정책 행태에 대한 경제학자의 기대를 조사 사용

□ 세션5 새로운 방법(New Methods)

- 거시경제 예측의 고전적 추정의 베이지안 평균
- 가우시안 CARMA모델의 몇가지 산술적인 면
- 예측 포트폴리오를 통한 최적화
- 조사의 정보내용
- 중국에서의 부동산 거품 연구
- 스위스에서 R언어 사용
- 헝가리의 가구소비추정도구로서 구글
-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헝가리에서의 경제적 현상
- 스위스의 실시간 GDP 예측
- 유가와 미국 GDP사이의 순환적 동조현상
- 동유럽과 유럽의 경기순환의 연구

□ 세션6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예측(Real Time Monitoring and Forecasting)

- 필립스 커브 모형을 이용한 유럽의 인플레이션 예측
- 독일에서의 경제활동과 재정압박
- 오차상관모델에 의한 GDP 성장률의 조기추정
- 경제위기 예측 : 접근신호의 통계적 의미
- 러시아의 기준순환일
- CFS 재정센터지수의 정보내용
- 유럽의 중심산업과 통화의 교환비율의 민간성
- 경기순환의 역동성

- 2009년 독일의 경기침체 어떻게 볼것인가?
- 유럽지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의 조기 추정 등
- GDP의 현재와 예측에 대한 거시경제 데이터 공포의 실시간 정보량의 평가(스위스의 사례)
- 경기순환지표의 위기 예측 능력의 사후 평가
- 사후 경기순환 분류가 시장참여자의 실제 기대를 포착하는가?
- 조사데이터가 이탈리아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데 유용한가?
- 실시간 침체에 대한 동적 프로빗모형 지표 등

□ 세션7 소비자 전망조사

- 유럽의 주기적 동행지표
- 소비자 전망지수와 경제활동사이의 연관성 재평가
- 브라질 경제에서의 경제활동의 선행지수들의 평가
- 소비자 전망조사에서의 편의 설명
- 양자택일 측정방법의 제안
- GDP와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의 비교
- 헝가리에서의 소비자전망지수를 통한 소매매출 예측
- 브라질 소비자의 내구재소비 및 저축에 대한 새로운 행태
-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소비자 전망지수의 민감성
- 중부 및 동유럽의 외국채와 가계부채의 연체이자
- 주택가격, 소비와 가계부채
- 실물경제에서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의 결과와 EU의 소비자기대

□ 세션8 특별토픽 : GDP를 넘어선 웰빙, 질적 삶 등

- 웰빙 측정을 위한 조사 및 방법론

- 가구에서의 시간활용조사에서 웰빙을 위한 무보수 작업의 기여 측정
- 어떤 삶의 조건이 질적인 삶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?
- 주관조사 응답의 타당성 : 방법론적인 시도적 연구
- 국가의 주관적 웰빙의 이해 : 경제, 문화, 산업적 요인
- 관찰되지 않은 경제적 산출 추정을 위한 통계적 접근
- 중국의 포괄적인 성장: 측정과 추정
- 주관조사 응답의 타당성 : 방법론적인 시도적 연구
- 오스트리아의 국가적 이전
- 고용에서의 주관적 웰빙

□ 세션9 노동시장 분석

- 스페인 노동자의 웰빙
- 노동퇴출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정규성 : 잠재집단 모델 접근법
- 터어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

□ 세션10 임시조사

- 재정 지식의 온라인 측정
- 시장규율과 정보비용 : 러시아 예금자조사 결과
- 기대인플레이션과 신용의 패널 이전화귀모델과 재정위기
- 최근 침체의 시작을 놓쳤는가? 등

□ 세션11 구조변화

- 시장경쟁과 탄자니아의 제조업
- 이란의 농업 신용시스템 구조변화의 효과

※ 전체 일자별 프로그램 및 Session의 발표자료 목록은 붙임2 「제31차 CIRET 컨퍼런스 프로그램」참고